



프랑스 노조통합의 아버지,

브누아 프라송

박 단

한양대 사학과 교수

브누아 프라송(Benoît Frachon, 1893-1975)은 20세기 프랑스 노동운동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비록 오랫동안 프랑스 공산당의 주요 직책을 지냈지만, 그는 늘 노조활동에 더 무게를 두었다. 그것은 그가 1930년대 초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의 서기 혹은 총서기로 재직하였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그가 한 평생을 바쳐 대진해 온 노동운동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었던 몇 가지 점을 지적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분열된 노동조합을 통

합시킨 일과 반전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프라송은 1893년 프랑스 루아르도(道)의 광산마을인 상봉-피즈블에서 광부의 아들로, 다섯 형제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루아르 도는 예로부터 프랑스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이 지역은 광산, 금속부문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프랑스 산업의 중추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지역환경으로 인하여 프라

프라송은 일찍 노동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다. 아직 어린 때인 1902년 10월 마을에서 일어난 광부들의 파업과 노동절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지켜보면서 그는 노동자 연대 문제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송은 일찍 노동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다. 아직 어린 때인 1902년 10월 마을에서 일어난 광부들의 파업과 노동절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지켜보면서 그는 노동자 연대 문제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프라송은 13세에 철물공장에 일을 배우러 들어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볼트공장에 취업하였으며, 곧 선반공이 되었다. 1909년 마침내 노조에 가입한 그는 1910년 1월 볼트공장에서 시작되어 루아르도 금속산업 전체로 확대된 파업에 처음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음 해에 결국 직장을 잃고 말았다. 재취업하는데 상당한 굴욕감을 느꼈던 프라송은 곧 광부들과 금속공들이 1909년에 창설한 무정부주의자 클럽에 가입하였으며, '직접행동'을 통한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 시기에 노동운동에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초등학교만을 다녔던 프라송은 노조 도서관에 부지런히 다니며, 소설, 철학 그리고 과학에 관한 책을

탐독하였다. 자기개발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던 것이다.

1차 세계대전과 반전활동

1912년 전쟁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참여하였던 그였지만, 1913년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젊은이와 함께 군복무를 하게 되었다. 지독한 근시였던 그가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오를레앙에서 근무할 당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전쟁발발로 인하여 현역으로 편입되었지만, 숙련된 기술 덕분에 그는 전선을 피하여 니에브르의 해군기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 당시 프라송은 '부르주아 정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노동총연맹(CGT) 내의 '신성동맹' 측 보다는 CGT가 전쟁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 동조하였다.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프랑스 노동계에서는 만일 전쟁이 일어날 경우 모든 프랑스-독일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통하여 부르주아지들의 전쟁에 대응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러한 결정은 1908년 마르세이유에서 개최된 CGT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이후 노총의 한결같은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독일노동자 뿐만 아니라, 프랑스 노동자들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으며, 이는 곧 민족이 계급에 우선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제1인터내셔널의 “노동자계급에게는 조국이 없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입장이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신성동맹’에 가담한 프랑스 노동지도부는 독일의 ‘제국’보다는 프랑스의 ‘공화국’이 노동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체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독일제국의 침략으로부터 프랑스 공화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전쟁은 발발하였고, 이 전쟁은 그 동안 인류가 겪지 못한 대량살상을 수반한 초유의 참혹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프랑스에서만 약 400만 명의 노동력이 상실되었다. 전쟁이 몇 년간 지속되면서 물가상등과 노동조건 악화 등으로 모두가 불만으로 가득 찼을 때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발생했으며, 이 충격으로 노동자들 사이에는 이 혁명에 대한 열띤 논

의가 일어났다. ‘신성동맹’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루아르도의 탄광지대 동료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던 프라송은 러시아 혁명의 열렬한 동조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명백한 전쟁 반대론자가 되었다. 이러한 전쟁반대 입장은 그가 1921년 6월 고향으로 되돌아온 후 상당히 커다란 금속공장에 취업했으나 이 공장이 어뢰탱크를 만든다는 이유로 직장을 떠났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공산당원에서 노조운동 책임자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해(1919년)에 제대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사회당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프라송은 기존의 사회당이 사회당과 공산당으로 분열된 후에는 공산당 지부의 당원이 되었다. 러시아 혁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은 레닌은 제3인터내셔널에 가입하는 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당에서 탈당하여 공산당을 창당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이 전 세계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사회당이 분열될 당시 공산당 가입자가 다수였는데, 이는 1차대전의 참혹함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겪은 프랑스 노동자들의 선택이기도 하였다. 전쟁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백히 취했

프라송이 공산당원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1922년 시의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상봉 시의 부시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는 “당시 나는 이러한 직책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으며, 대중운동, 노조활동만이 나의 흥미를 끌었다”고 회고하였다.

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혁명에 고무되었던 프라송은 아무 주저없이 공산당에 가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프라송이 공산당원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1922년 시의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상봉 시의 부시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는 “당시 나는 이러한 직책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으며, 대중운동, 노조활동만이 나의 흥미를 끌었다”고 회고하였다. 같은 해 그는 고향인 상봉의 금속노조 위원장이 되었다. 이후 프라송은 이 지역의 파업을 효과적으로 이끈으로써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수 차례에 걸친 투옥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1924년 말에는 상봉시의 부시장직을 사임하고, 통일노동총연맹(CGTU.)의 무아르도 위원장이 되었으며, 동시에 공산당 내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졌다. CGTU는 1920년 기존의 사회당이 사회당과 공산당으로 분열되었듯이, 1921년에 개량주의에 반대하는 공산·무정부주의 계열의 노동자들이 기존의 CGT로부터 탈퇴하여 결

성한 노총이다.

프라송은 당내에서 승진을 거듭하였으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도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1928년 말 그는 자신의 지역을 완전히 떠나 파리로 왔다. 이는 그가 프랑스 공산당 안에서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그는 원칙적으로 노조운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했으며, 당과 노조운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31년부터는 노조운동에 대해 좀더 관심을 기울였다. 이 시기는 공산당 지도부 대부분이 CGTU 조합원의 계속적인 감소로 크게 실망하고 있을 때였다. 그것은 이 공산계 노총이 계속해서 정치투쟁에만 매진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프라송은 정치적인 투쟁보다는 각별히 노동자들의 시급한 요구사항, 즉 일 반적인 경제투쟁에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그는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조건을 보호하는 기만 위에 CGTU를 중심으로 분열된 노동조합을 다시 통

합시키기 위한 투쟁에 몰두하였다. 프라송은 자신의 주장을 여러 신문을 통해 피력하는 동시에 노동자 투쟁현장에 빈번히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쟁관계에 있는 CGT 소속 노동자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31년 11월 CGTU의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연맹의 간부로 임명된 그는 이 노총의 총서기가 됨으로써 1932년 10월에 공산당 서기자리를 떠났다.

통합을 위하여

분열된 두 노총 사이의 통합을 진작부터 주장해오던 프라송은 1934년 2월 12일 양대 노총이 합세한 총파업으로 그의 통합에의 의지를 더욱 굳힐 수 있었다. 사실 1934년 2월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프랑스의 전국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동안 누적되었던 정·재계의 스캔들에 대하여 1934년 2월 6일 극우단체(공산당원들은 이들을 '파쇼'라고 불렀다)들은 의사당 앞에서 의회해산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공화국이 위협에 처해있다고 생각한 CGT는 2월 12일 총파

업을 결정하고 공산당과 공산계열의 노총인 CGTU를 제외한 모든 좌파조직에 이 파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비록 초대되지는 않았지만, CGTU도 이 파업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러나 이 총파업은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비록 지도부 차원에서는 합동 총파업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단위노조 차원에서는 파리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자발적인 통합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들이 미리 동맹파업을 계획한 것은 드물었지만, 거리의 시위에서 서로 만날 경우 흔히 "통합! 통합!"을 외치며 상호간의 우애를 과시하였다. 사실 상호 적대적이기까지 하였던 두 노총으로서는 1921년 헤어진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우호적 분위기였다. 이는 두 노총의 지도부에게는 커다란 압력으로 나타났다. 사회당이나 CGT 지도부를 '사회파시스트'로 간주하던 공산당도 총파업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열린 이브리 전국회의에서(1934년 6월) 사회당과의 공동투쟁뿐만 아니라 노조통합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러한 전격적인 입장 변화가 모스크바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모리스 토레즈 프랑스 공산당 서기장과 프라송 등 프랑스 공산당 지도부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는지 여전히 논

분열된 두 노총 사이의 통합을 진작부터 주장해오던 프라송은 1934년 2월 12일 양대 노총이 합세한 총파업으로 그의 통합예의 의지를 더욱 굳힐 수 있었다.

란거리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통합의 물결을 양쪽 지도부가 더 이상 거부하기는 쉽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2월의 사건이 있기 전부터 통합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온 프라송은 누구보다도 통합을 위한 행동에 열심이었다. 당차원에서는 사회당과 같은 레

7월 27일 행동봉일 협정을 맺음으로써 당대 당 통합에 한 걸음 바짝 다가섰다. 9월에는 CGT의 위원장인 레옹 주오를 위시한 CGT 집행부와 통합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이는 총연맹 차원에서는 1921년 분열 이후 처음 갖는 회동이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갑자기 노동계에



1934년 CGT와 CGTU, 양대노총이 합세하여 총파업을 조직했다. 이 파업을 계기로 프랑수아 프라송의 지분이 확실해졌다.

서 통합일기가 불어다치게 된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우선 앞서 말한대로, 프랑스내의 극우단체들의 소요이다. 이는 사실 프랑스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주지하다시피 1933년 1월 30일 독일에서 히틀러가 수상직에 오른 것은 프랑스 노동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다. 특히 1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프랑스 북동부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마치 전쟁이 다시 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마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점점 파쇼화되어 가는 나라들을 바라보며 프랑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노동계의 위기의식은 그들 사이의 통합을 적극 고려하게끔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공황의 영향이었다. 처음에는 프랑스는 예외가 아니냐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으나 1931년부터 시작된 실업률의 증가와 경제위기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1934년 4월 마침내 정부는 공무원 임금삭감과 인원감축에 관한 포고령 등을 발표하면서 재정긴축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기관 노조는 크게 반발하였다. 여기서 특기 할 것은 CGT는 절 반 이상이

이 같은 공공기관 노조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하부로부터의 투쟁 압력을 더욱 거세게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덧붙여 CGTU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던 철도노조는 통합활동에 박차를 가하여 CGT 지도부를 어쩔 수 없이 통합의 마당에 나오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노조통합에 있어서 프라송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단일노조라는 개념을 만들어 하부에서의 통합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였다. 단일노조란 간단히 말해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와 관계없이 공동으로 투쟁하되, 좀더 효율적으로 투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직한 제3의 조직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노조비 납부문제가 야기되는데, 총연맹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현재 자신이 속한 연맹에 노조비를 납부할 권리를 갖는 그러한 형태의 단일조직이 상정된다. 프라송은 이미 구성된 단일노조의 한 예를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각 노조원은 CGT든 CGTU든 자신의 노조중(勞組證)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총연맹측에 회비를 납부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함께 모여서 사안을 논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당과 공산당의 통합은 실패했지만, 노조의 통합은 이루어졌고, 이 통합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16년만에 하나로 된 프랑스의 노동총연맹(CGТ)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CGT 노조원들이 공동투쟁에 소극적인 자신들의 총연맹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었으며, 반면 CGTU측으로서는 이들을 자신들의 전략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이끌어 CGT측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전략에 힘입어 마침내 CGT 지도부는 1935년부터 본격적으로 CGTU와 대화하게 되었다. 통합의 최대 장애물은 공산당의 분파활동 포기여부였다. 사실 공산당은 내부적으로 CGTU가 CGT와 통합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파활동을 하여 나중에는 CGT의 하부조직을 포섭함으로써 CGTU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할 전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프라송은 이것이 통합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CGT의 입장을 수용하여 인터내셔널의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분파행위 금지를 선언하게 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는 통합에 대한 불굴의 추진자가 되었다. 마침내 각 공공산업을 시작으로 산별연맹에서 통합대

회가 경쟁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각 산별연맹은 연맹주의의 원칙에 따라 연맹 나름대로의 결정사항을 채택하였다. 각 산별연맹 내에서 압대노총의 세력판도에 따라 위원장이 CGT측 인사가 되기도 하고 CGTU측 인사가 되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CGT측이 우세하였다. 단지 상대적으로 혁명적이었던 노조들은 CGTU측에서 장악하였다.

1936년 1월 마침내 총연맹에서의 통합이 의결되고 3월 프랑스 남쪽의 도시 들무즈에서 전국 통합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오를 비롯한 구 CGT 인사 4명과 구 CGTU측에서의 프라송, 라카몽이 총연맹의 시기가 되었다. 대의원 대회에 상정된 4개의 의제 가운데 프라송이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당의 직책과 노조의 직책을 겸임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이는 구 CGT측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였다. 결론은 두 직책의 겸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났다. 이로서 프라송을 비롯한 공산당의 직책을 갖고 있던 CGTU의 지도자들은 당의

직책에서 물러나 순수하게 노조의 직책만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당과 연계를 가졌음은 물론이다.

인민전선의 결성

비록 사회당과 공산당의 통합은 실패했지만, 노조의 통합은 이루어졌고, 이 통합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16년만에 하나로 된 프랑스의 노동총연맹(CGT)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사회당의 레옹 블룸이 사회당, 공산당, 급진당으로 구성된 인민전선의 도움으로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하였고,

노동총연맹의 조합원은 기존 두 노동총연맹 다 합쳐 70만 정도였던 것이 약 490만 명으로 증가하여 노조 가입율이 50%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프랑스 역사상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대약진이었다. 특히 1936년 5월-6월의 공장점거를 비롯한 총파업은 마침내 정부, 재계, 노동총연맹의 3자 회담으로 이어져 마티농협약을 내놓게 되었다. 마티농협약으로 새로이 노동자가 얻게 된 것은 8시간 노동제, 단체협약, 유급휴가 등이었다. 특히 유급휴가는 내륙의 노동자가 이 해 여름 처음으로 바다로 바캉스를 떠날 수 있게 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였다. 이는 노동자 세력의 통



1936년 인민전선의 후원하에 체결된 마티농협약은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최초로 선사하였다. 사진은 상에 처음으로 바다를 향해 휴가를 떠나는 파리의 노동자들

마티농협약을 체결하는 데 프라송의 역할은 대단하였다. 이로써 프라송은 새로운 CGT의 지도자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합된 CGT내에서 구 CGTU측에 동조하는 노조원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생애 끝까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모범적인 순간'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합이 얼마나 커다란 결과를 가져다주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겠다.

마티농협약을 체결하는 데 프라송의 역할은 대단하였다. 이로써 프라송은 새로운 CGT의 지도자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합된 CGT내에서 구 CGTU측에 동조하는 노조원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생애 끝까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모범적인 순간'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전쟁과 노조의 분열

열정적인 순간도 잠시. 스페인 내전을 둘러싸고 사회당과 공산당의 입장이 대립되는가 하면, 유산자층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마침내 불륜정부가 사퇴하는 일이 일어났다. 한편, 통일된 노총 내에서 구CGT 지도자 일부는 계속해서 반공산주의 경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프라송은 통합을 유지하려는 순례자의 역할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들 반공산주의파에 대항하여 일단 총서기인 레옹 주오와 일치단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프라송의 전략으로서 구 CGT와 내에서 반공산주의파를 격리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는 성공하였다. 한편으로 주오와의 연합은 세계노조연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였다. 노총의 통합 당시 대의원들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끊어야 했던 국제적색노조(ISR)와 CGT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노조연맹(FSI)을 통합시킴으로써,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노조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프라송의 생각이었다. 이에 대한 그의 헌신적 노력으로 일차적으로 프랑스 노총은 소비에트노조와 대화를 트게 되었고, 1937년 11월 마침내 '개량주의 노조의 대표자적인' 주오와 함께 세계노조의 통합을 위하여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오와의 타협으로 노총 내에서 통합을 계속 유지하려는 프라송의 계획은 2차 세계대전이 다가오면서 난항

에 봉착하게 되었다. 히틀러의 체코 침략을 마지못해 인정하게 되는 영·불·독간의 뮌헨협정에 대하여 프라송은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이 협정을 승인하는 CGT의 전국위원회에서의 주오의 선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조약(1939년 8월 23일) 소식이 프랑스에 전해지면서 반공산주의 운동이 물결치게 되었고 주오와의 관계도 지속되기가 어려워졌다. CGT내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독소불가침 조약을 부인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이 조약에 혼란을 느낀 것이 사실이었다. 어떻게 파시스트 정권과 세계노동자계급의 조국인 소비에트 공화국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은 소련이 세계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배반하고 소련이라는 한 국가의 이익만을 도모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결과로 상당수의 공산당 국회의원이 탈당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으며, 공산당은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프라송은 어쩔 수 없이 노동 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총연맹에서의 자리를 잃게 되었다. 프라송은 9월 30일 브뤼셀에서 발행되는 제3인터내셔널의 잡지 『르 몽드』(Le Monde)에서, 「프랑스에서의 노조통합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비난하고, CGT를 정당과 정부들로부터의 독립시킬 것을 촉구하였으며 모든 노동자들이 "CGT내에서" 다시 통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독소불가침조약으로 인하여 힘들게 통합한 CGT가 다시 분열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 탓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프랑스에서 1차 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반노동자적인 '신성동맹'이 부활하는 것을 비난하였다.

전쟁 발발과 재통합, 그리고 또 다른 분열로

전쟁이 일어나자 프라송은 지하에 숨어 투사로서 활동하였으며, 1944년까지 파리지역을 떠나지 않았다. 그 외중에 공산당 기관지들을 비밀리에 다시 살리려고 하였으며,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재건하고 개량주의자 지도자를 제거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위해 투쟁하도록 촉구하였다. 이 기간동안 프라송은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주요 활동 분야는 여전히 노조활동이었다. 지하신문들을 통하여 프라송은 친독정부인 비시정부(독일의 프랑스 침략으로 폐탕 원수는 프랑스 남부에 친독정부인 비시정부를 세우게 되고, 드골 장군은 런던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를 세

운다)를 공격했으며, 노동자들의 단합을 촉구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비시정부와 투쟁하는 레지스탕스의 조직자로서, 한편으로는 온갖 수단을 통하여 적법하거나 혹은 불법적인 대중노조를 재건하려는 노조운동가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그는 독소불가침조약으로 분열된 CGT가 다시 한번 재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친독정부인 비시정부가 마련한 '노동헌장'(Chate du Travail)에 대한 적대감으로 1941년 5월 17일, 구CGT와 구CGTU의 대표자들 사이에 집회가 조직되었으나, 비시정부의 억압으로 인하여 무산된 이 접촉은 1942년 7월에 재개되었다. 프라송은 주오에게 즉각적인 요구사항과 노조의 자유, 노동헌장의 거부 그리고 독일에서의 강제노역거부 등을 노동자계급의 공동 주장으로 제안하였다. 무장투쟁에 대한 이견과 지하로 들어가는 데 대한 주오의 망설임 등으로 회담이 갑자기 중단되었으나, 결국은 1943년 4월 페르(Perreux)에서의 재통합 합의로 가닥이 잡혔다. 1944년 해방 때까지 주요 노조활동은 프라송의 지도하에 있는 구CGTU 조합원의 일로 남아있었다. 지하에서 이들은 CGT의 다수를 장악하였으며, 프라송의

권한은 막대해졌다. 결국 CGT는 두 명의 총서기(주오와 프라송)를 갖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945~46년에, 주오와 프라송의 양두 정치는 1945년 9월 5일의 전국위원회에서 공식화되었으며, 1946년 4월의 전국대의원대회에 의해 확인되었다. 당시 CGT 세력의 80%는 구CGTU에게 있었다. 이후 프라송은 두 가지 점에 힘을 쏟았다. 하나는 임금인상이다. 이는 독일로부터 해방된 1944년 이래 생산이 꾸준히 성장된 것과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CGT의 내부 불화에 대한 적정이었다. 그는 이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몇몇 구CGT의 지도부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비판한 적이 있었다. 걱정했던 대로 1947년 말 CGT는 주오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힘'(CGT-FO)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끝까지 통합을 주장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또 한 번의 분열이었다.

만년의 생활

앞서 이야기한 대로 프라송은 프랑스의 20세기 노동운동 지도자들 가운데 그 세대의 대표주자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는 공산당 투사로서, 그리

고 노조운동가로서 그의 전생애에 걸쳐 노동계급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였다.

일찍이 러시아의 경험에 깊게 영향 받은 그는 우선적으로 공산주의자였다. 생애 내내 소련의 입장을 매우 열정적으로 찬양했으나, 맹목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추종하지만은 않았다. 1968년 프랑스 공산당의 지도부가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개입을 비난했을 때, 그의 입장은 이 지도부와 차이가 있지 않았다.

그는 또한 대표적인 노조운동가였다. 노조운동가로서 그의 주요 관심사는 모든 임금노동자들을 그들의 요구사항과 그들의 권리수호를 위하여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노동계급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프라송의 최대 관심사였다. 원한을 접어 버리고, 행동통일을 꾀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그에 게는 중요하였다.

프라송은 만년까지도 새로운 사안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다. 예를 들어, 그는 1959년부터 CGT가 새로운 임금노동자 집단, 즉 엔지니어, 기업

간부, 기술자 등, 새로이 등장하는 계층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1966년에는 이들 계층과 노동자계급 간의 동맹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은 만년에는 그의 건강 악화로 지속되지 못하였다. 1967년 CGT의 36차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마침내 그는 조지 세기(Georges Séguy)에게 총연맹의 총서기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렇다해도 그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1968년 5월 혁명 당시에 그는 정부와의 그르넬 협정에 참여하였다. 1936년 마티농 협정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로서 참여한 것이었다.

작은 키에, 약간 비만이며, 짧은 머리에, 작은 턱수염, 두꺼운 안경, 끊임없는 파이프 담배. 태도가 약간 무뚝뚝하고, 성격이 활달하며, 심지어는 재기발랄하기까지 하였던 프라송은 루아르 강가에서의 낚시를 취미로 삼으며 말년을 보내다 1975년 8월 4일 건강악화로 마침내 사망했다. 프랑스 노동계의 커다란 별이 떨어진 것이다. ❖